

자료해석영역

문 1. 다음은 5개국이 어떤 국제기구에 납부한 최근 4년간의 자발적 분담금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표>의 A, B, C, D, E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국가별 자발적 분담금 총액
(단위: 백만 달러)

국 명	국가별 자발적 분담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A	500	512	566	664
B	422	507	527	617
C	314	401	491	566
D	379	388	381	425
E	370	374	392	412

<표 2> 각국의 1인당 자발적 분담금
(단위: 달러)

국 명	1인당 자발적 분담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A	119	143	158	196
B	46	55	56	78
C	251	277	282	290
D	137	150	189	205
E	35	41	43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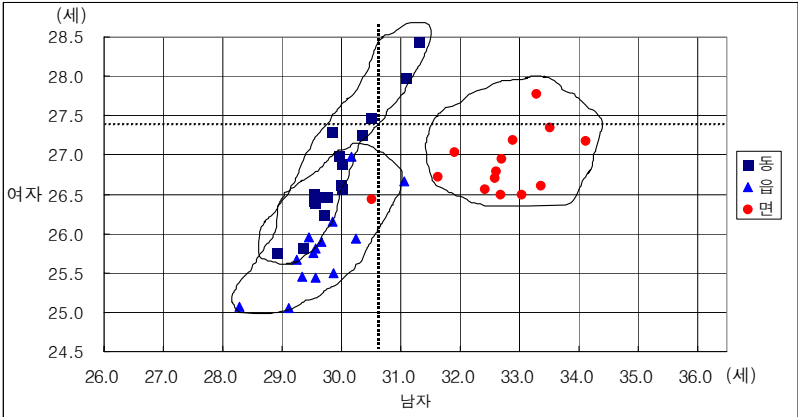
<보 기>

- ㄱ.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국가별 자발적 분담금 총액의 증가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하다.
- ㄴ. 노르웨이와 영국은 1999년 대비 2000년 국가별 자발적 분담금 총액의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다.
- ㄷ.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살고 있는 개인 1인당 자발적 분담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다.

- | | | | | |
|--------|------|------|------|------|
| A | B | C | D | E |
| ①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영국 | 이탈리아 | 스웨덴 |
| ② 네덜란드 | 영국 | 노르웨이 | 스웨덴 | 이탈리아 |
| ③ 영국 | 이탈리아 | 노르웨이 | 스웨덴 | 네덜란드 |
| ④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 |
| ⑤ 영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이탈리아 |

문 2. 다음은 A지역의 동·읍·면별 평균 초혼 연령의 분포에 관한 <그림>이다. 타당한 해석을 모두 고르면?

<그림> 동·읍·면별 평균 초혼 연령의 분포



- ※ ■, ▲, ● 기호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동·읍·면 중 하나를 나타냄.
- ※ 점선은 전국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을 나타냄.
- ※ 단위구간은 여자의 경우 0.5세, 남자의 경우 1.0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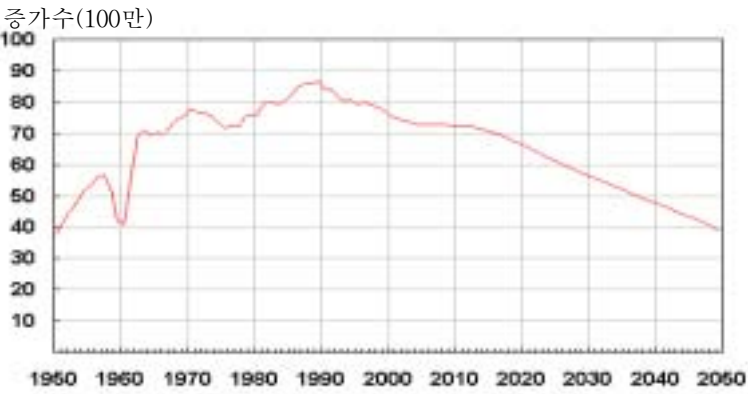
<보 기>

- ㄱ. A지역 대부분의 면단위에서는 남자 평균 초혼 연령이 전국 남자 평균 초혼 연령보다 높다.
- ㄴ. A지역 대부분의 읍단위에서는 남녀 각각 전국 평균 초혼 연령보다 낮은 평균 연령에서 처음 결혼한다.
- ㄷ. A지역 동단위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한 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ㄹ. A지역 대부분의 면단위에서는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전국 여자 평균 초혼 연령인 27.3세 이전에 처음 결혼한다.
- ㅁ. 단위구간으로 보았을 때, A지역에서 여자는 26.0 ~ 26.5세, 남자는 30.0 ~ 31.0세에 결혼하는 동·읍·면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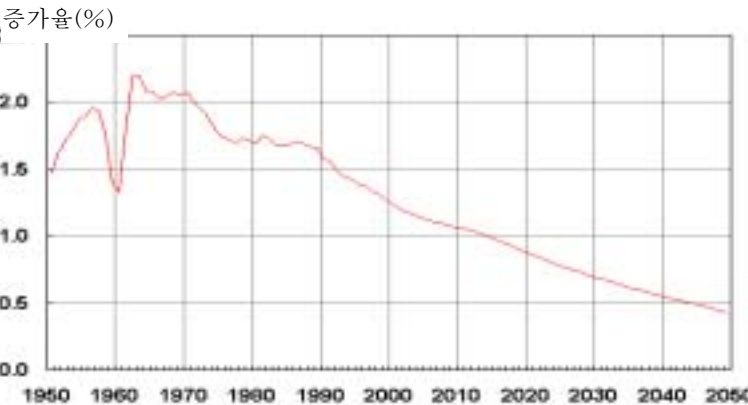
- | | |
|--------------|-----------|
| ① ㄱ, ㄴ, ㄹ | ② ㄴ, ㄷ, ㄹ |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
| ⑤ ㄱ, ㄴ, ㄹ, ㅁ | |

문 3. 다음은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인구의 추이와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 이후의 기간에는 <그림>에서 전망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옳은 주장으로만 묶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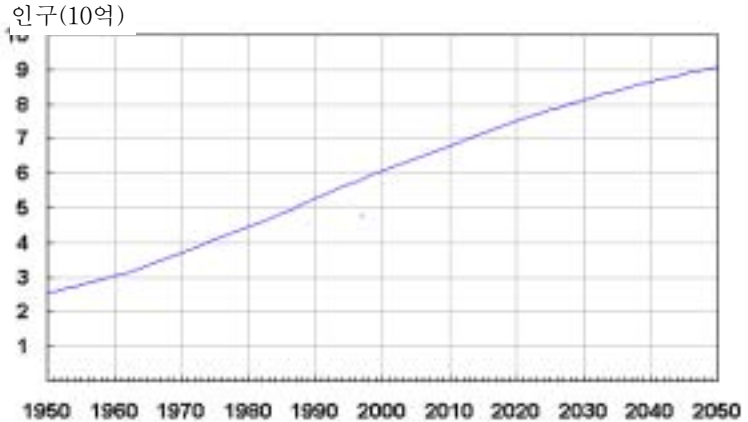
<그림 1> 연간 세계 인구 증가수(1950 ~ 2050년)



<그림 2> 연간 세계 인구 증가율(1950 ~ 2050년)



<그림 3> 세계 총인구수(1950 ~ 2050년)



<보 기>

- ㄱ. 2005년 이후 10년간 연간 세계 인구 증가수는 다른 기간에 비해 일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ㄴ. 2005년 이후 10년간 연간 세계 인구 증가율은 높아질 것이다.
- ㄷ. 1950년부터 30년간 증가한 세계 총인구수는 2020년부터 30년간 증가할 수보다 클 것이다.
- ㄹ. 2050년부터 2060년까지 연간 세계 인구 증가수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ㅁ. 2060년 연간 세계 인구 증가율은 0.5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ㅂ. 2060년 세계 총인구수는 100억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ㅂ
- ⑤ ㄴ, ㅁ, ㅂ

문 4. 다음에 제시된 일선 세무서의 연도별 체납정리에 관한 자료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표> 연도별 체납정리

연도\구분	담당 직원수	직원당 체납건수	직원당 체납자 수	체납자당 체납액	총정리 비율	현금정리 비율
2000	16	1,052	952	38,037천원	62%	37.2%
2001	17	1,127	984	37,984천원	68%	35.4%
2002	15	974	901	38,354천원	65%	39.3%

- ※ 체납: 부과 또는 고지된 세금 중 납기를 넘긴 것
- ※ 현금정리: 체납된 세금 중 현금으로 징수한 것
- ※ 현금정리비율: 총정리액 대비 현금정리액 비율
- ※ 총정리비율: 총체납액 대비 총정리액 비율
- ※ 체납발생비율: 총세액 대비 체납액 비율

- ① 총체납액
- ② 체납자 1인당 체납건수
- ③ 체납 1건당 체납액
- ④ 총현금정리액
- ⑤ 체납발생비율

문 5. 다음 <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한·중·일 기술 경쟁력 비교조사」라는 보고서 중, 우리나라 대기업 146개사와 중소기업 99개사(총 245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 대비 일본과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체감 수준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

비교 대상국	구분	분류	종합	제품 설계	소재 관련	부품 관련	조립 가공	공정 관리	개발 속도
일본	전체	응답자 전체	125	126	126	123	122	124	121
	기업	대기업	125	128	128	124	119	122	121
		중소기업	124	124	122	120	125	126	121
	업종별	조선	120	110	115	120	110	110	110
		정보통신	117	121	112	119	121	117	120
		자동차/부품	126	123	125	123	123	125	118
중국	전체	응답자 전체	80	78	78	79	82	79	94
	기업	대기업	77	74	75	76	79	76	91
		중소기업	84	84	84	83	87	84	98
	업종별	조선	80	75	75	85	80	90	105
		정보통신	88	83	93	92	93	91	108
		자동차/부품	76	73	69	73	79	74	99

※ 수치는 한국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과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뜻임.

- ① 전체적인 기술경쟁력을 볼 때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조사대상자들은 보고 있다.
- ② 응답자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한국과 중국의 격차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 ③ 한국과 중국의 기업규모별 기술경쟁력의 차이를 살펴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가 대기업의 경쟁력 차이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 ④ 한국과 일본의 업종별 기술경쟁력 차이를 살펴볼 때 개발속도를 제외한다면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기술경쟁력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 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제품설계와 소재관련 부문에서 기술경쟁력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문 6.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거구의 유권자 중 5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지지후보를 조사한 결과 A후보의 지지율은 52.5 %, B후보의 지지율은 47.5 %로 나타났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차한계의 공식을 여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text{오차한계}(\%) = \pm Z_{\alpha} \times \sqrt{2,500/\text{표본수}}$$
$$Z_{\alpha} = 1.96 \text{ (95 \% 신뢰수준일 때)}$$
$$Z_{\alpha} = 2.58 \text{ (99 \% 신뢰수준일 때)}$$
$$\sqrt{5} = 2.24, \sqrt{2.5} = 1.58$$

- ① 이 여론조사의 경우 99 %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는 ±4.39 % 이다.
- ②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99 %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를 벗어나므로 A후보의 승리가 예상된다.
- ③ 표본수가 여론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1,000명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
- ④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95 %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를 고려하면 50 % 이하가 될 수 없다.
- ⑤ 표본수를 2,500명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지지율을 얻었다면 95 % 신뢰수준에서 A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문 7.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중 연령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를 해석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모은 것은?

<표> 연령구조의 변화 (1966 ~ 2000년)

연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연령								
인구수(천명)								
0 ~ 14세	12,684	13,241	13,208	12,656	12,095	11,050	10,341	9,647
15 ~ 29세	7,251	7,816	9,777	11,376	12,632	12,991	12,056	11,701
30 ~ 44세	4,859	5,509	6,214	6,874	7,884	10,073	11,440	12,331
45 ~ 59세	2,853	3,164	3,535	4,233	5,052	5,971	6,498	7,287
60세 이상	1,512	1,705	1,944	2,268	2,756	3,415	4,214	5,165
계	29,159	31,435	34,678	37,407	40,419	43,500	44,549	46,131
구성비(%)								
0 ~ 14세	43.5	42.1	38.1	33.8	29.9	25.4	23.2	20.9
15 ~ 29세	24.9	24.9	28.2	30.4	31.3	29.9	27.1	25.4
30 ~ 44세	16.7	17.5	17.9	18.4	19.5	23.2	25.7	26.7
45 ~ 59세	9.8	10.1	10.2	11.3	12.5	13.7	14.6	15.8
60세 이상	5.2	5.4	5.6	6.1	6.8	7.9	9.5	1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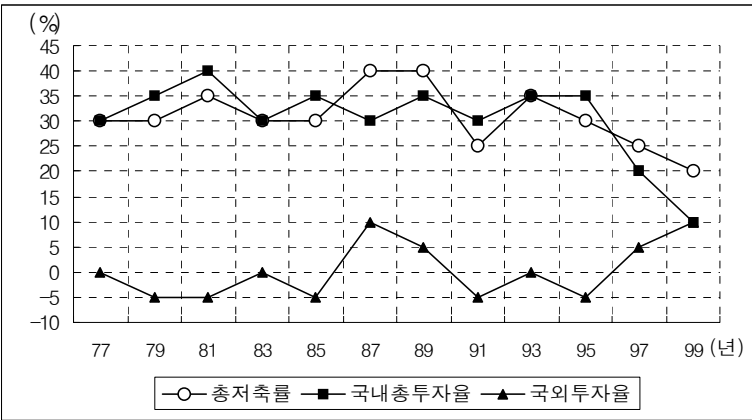
<보 기>

- ㄱ. 1960년대 중반에 구성비가 가장 컸던 0 ~ 14세 층의 인구는 197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 ㄴ. 15 ~ 29세 층의 인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ㄷ. 1960년대 중반 이후 30세 이상의 각 연령층은 모두 그 수와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ㄹ. 1960년대 중반에 60 %를 상회했던 30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은 최근(2000년)에는 50 %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 ㅁ. 3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31.7 % (1966년)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 50 %를 처음으로 넘어서서 2000년에는 53.7 %로 전 인구의 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ㄹ, ㅁ

문 8. 다음은 한 국가의 저축, 투자 및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을 정리한 <그림>과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림>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 ※ 총저축률 = (총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 ※ 국내총투자율 = (국내총투자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 ※ 국외투자율 = (국외투자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 ※ 총투자율 = (총투자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 국내총투자율 + 국외투자율

<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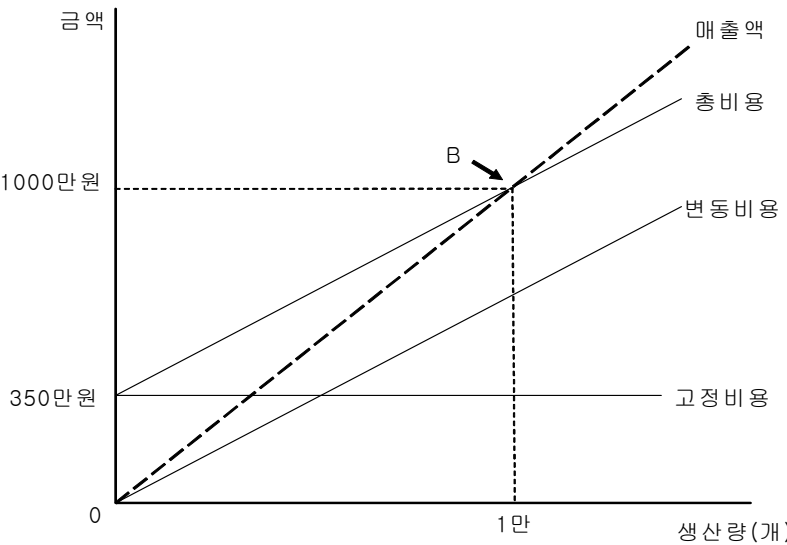
(단위: 조원)

연도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8	31	40	63	80	110
연도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48	216	278	376	450	478

- ① 1977년의 총저축은 30조원이다.
- ② 1987년의 총투자는 44조원이다.
- ③ 1997년의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의 합은 450조원이다.
- ④ 1991년의 국내총투자는 64.8조원이고 1985년 국외투자는 4조원이다.
- ⑤ 1999년의 국내총투자율과 국외투자율은 같지만,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는 서로 다르다.

문 9. H기업은 당해연도에 생산된 제품 A를 그 해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제품 A의 생산량에 따른 손익분기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단,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판매가격 및 변동비용은 항상 동일하며,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합이다.)

<그림> 제품 A의 생산량에 따른 손익분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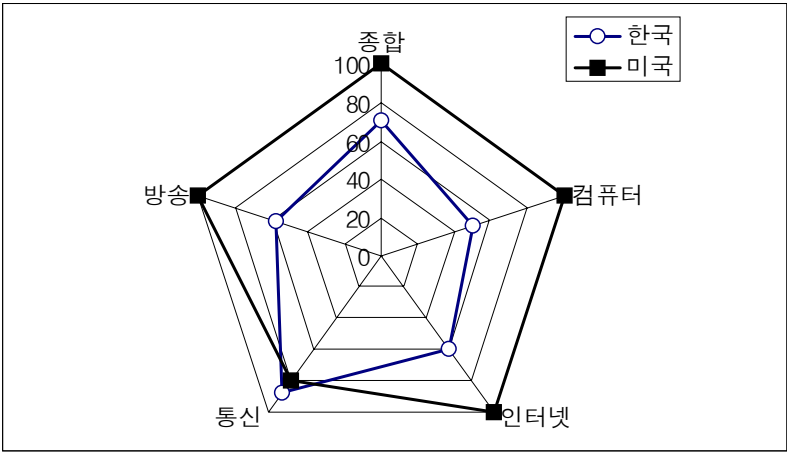
<보 기>

- ㄱ. H기업은 총비용과 매출액이 만나는 지점인 B점에서 손해도 이익도 보지 않는다.
- ㄴ. H기업은 B점 왼쪽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ㄷ. 생산량을 15,000개로 늘린 후 전량 판매하면 H기업은 이익을 보게 된다.
- ㄹ. 매출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단위당 판매가격은 65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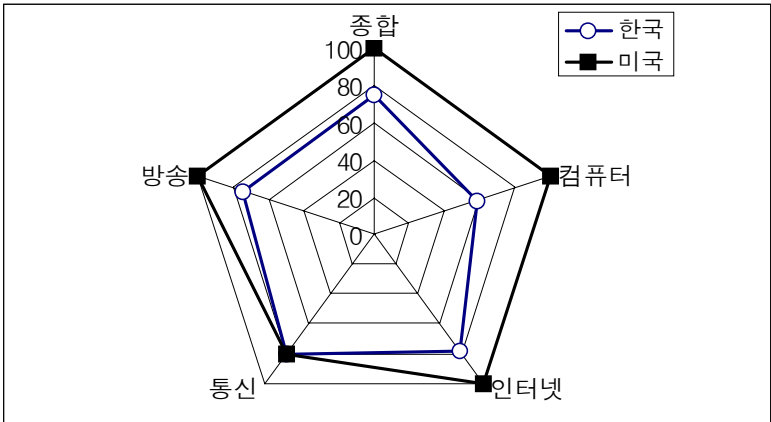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문 10. 다음 <그림>을 바탕으로 한 분석 중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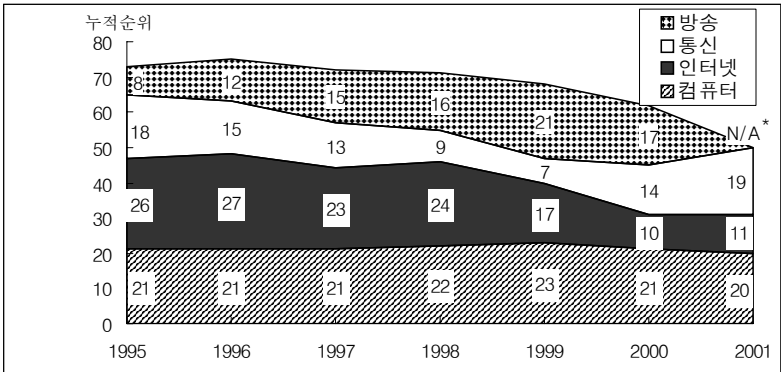
<그림 1> 1999년 한국과 미국의 정보화 관련 지수 비교



<그림 2> 2000년 한국과 미국의 정보화 관련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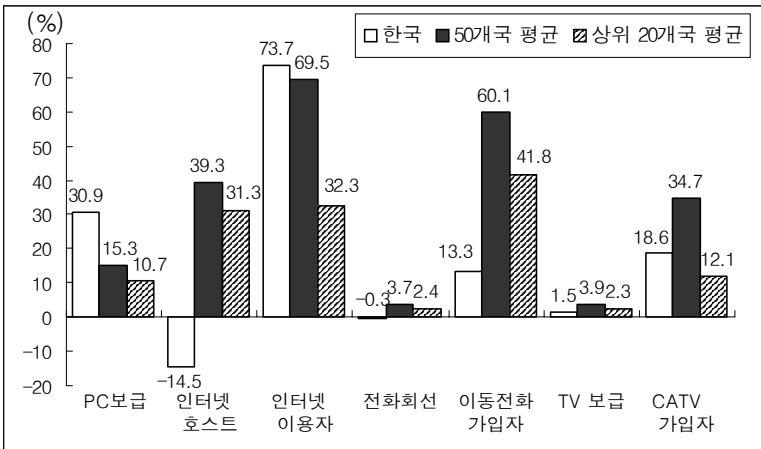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의 부문별 정보화 국제 순위 추이



* 방송의 경우 2001년도에 발표된 순위자료가 없음.
※ 숫자는 국제 순위를 나타냄.

<그림 4> 정보화 지표의 증가율 비교(1999년 대비 2000년)



- ①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방송, 컴퓨터, 인터넷 부문은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 ② 통신 부문은 1999년에는 미국보다 약간 높았으나 200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③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수는 종합적으로 1999년보다 2000년에 향상되었다.
- ④ 우리나라의 부문별 정보화 국제 순위에서 인터넷이 1997년 이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우리나라는 PC보급 및 인터넷 이용자 지표의 증가율이 비교 대상국의 평균 증가율을 모두 초과하고 있고, CATV 가입자 지표는 상위 20개국 평균 증가율보다는 높으나 50개국 평균 증가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문 11. 다음 <표>들은 우리나라의 2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부패 정도와 부패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바르게 해석한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분야별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분야	정치권	법조계	행정부	교육계	기타
20, 30대	64.5	15.8	7.3	5.9	6.5
40, 50대	65.2	18.8	4.4	5.6	6.0
60대 이상	60.4	23.6	0.0	6.4	9.6

<표 2> 부패의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부패원인	저임금	정경유착	상납관행	온정주의	무응답
20, 30대	11.2	44.4	36.0	8.4	0.0
40, 50대	23.6	27.2	40.4	6.4	2.4
60대 이상	54.8	12.4	17.2	15.6	0.0

<보 기>

- ㄱ.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정치권이다.
- 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 30대는 정경유착을 부패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 ㄷ. 위 <표>에 의하면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ㄹ.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패의 원인이 온정주의라고 응답한 사람 수가 많아진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문 12. 다음은 어떤 국가의 국회의원들(총 의원정수 435명)을 대상으로 소속정당별 이념성향과 시장개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얻은 자료이다. <보기> 중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소속정당별 이념성향과 시장개방에 대한 태도

구 분		시장개방에 대한 태도				계 / 평균
		적극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적극 찬성	
A당	의원수	7	23	82	94	206
	ADA점수 평균	70.0	73.5	88.2	89.8	86.7
B당	의원수	170	53	4	2	229
	ADA점수 평균	8.4	14.3	18.8	30.0	10.1
계 / 평균	의원수	177	76	86	96	435
	ADA점수 평균	10.8	32.2	85.0	88.6	46.4

※ ADA점수란 전반적 이념성향을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이고, 낮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보 기>

- ㄱ. A당 의원들은 B당 의원들에 비해 시장개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 ㄴ. A당 의원들은 B당 의원들보다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 ㄷ. 이 국가의 총 국회의원 중 시장개방에 찬성하는 의원의 비율이 반대하는 의원의 비율보다 높다.
- ㄹ. A당, B당 모두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의원들보다 찬성하는 의원들의 ADA점수 평균이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3. 다음은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비지출과 처분가능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 및 추론한 것으로서 <보기> 중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표 1>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비지출 및 구성비
(단위: 천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 비 지 출	1,059.4	1,427.5	1,796.0	2,150.6	2,743.2
구 성 비					
식 료 품	31.8	30.1	27.9	26.2	25.3
주 거	4.7	4.4	3.5	3.0	2.1
광 열 수 도	4.7	4.0	3.3	2.9	2.6
가구가사용품	3.1	3.5	3.6	4.0	4.3
피 복 신 발	4.4	4.5	4.8	4.5	5.0
보 건 의 료	5.1	4.1	3.7	5.0	3.9
교 육	9.5	10.9	11.4	15.0	13.5
교 양 오락	4.3	4.5	5.2	5.8	5.8
교 통 통 신	18.3	18.6	19.5	16.2	17.4
기타소비지출	14.2	15.4	17.0	17.3	2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소득5분위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단위: 천원)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처분가능소득	992.7	1,663.9	2,227.7	2,954.9	4,890.2
혹 자 액	- 66.7	236.4	431.7	804.3	2,147.0

※ 전체 조사가구를 소득순으로 5등분하여 각 분위별 평균값을 집계함.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짐.
※ 소득5분위배율 = $\frac{5분위계층\ 처분가능소득의\ 평균값}{1분위계층\ 처분가능소득의\ 평균값}$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보 기>

- ㄱ. 하위소득계층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 ㄴ. 소득5분위 배율은 2.58로 나타난다.
- ㄷ. 상위소득계층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난다.
- ㄹ. 상위소득계층일수록 가구가사용품 및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 ㅁ. 1분위계층의 소비지출은 평균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ㄹ, ㅁ

문 14.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각 소비품목의 지출비율을 반영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기준연도 대비 물가수준을 계산한 지수이다. 다음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 2000년 = 100)

구 분	품목수 (개)	가중치	2002년 8월				2003년 8월			
			지수	상승률 (%)			지수	상승률 (%)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8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8월)
<총지수>	516	1000.0	107.4	0.7	2.4	2.5	110.6	0.5	3.0	3.6
· 상 품	357	450.3	106.9	1.1	1.9	2.3	109.0	0.9	2.0	3.2
(농축수산물)	71	107.4	115.2	4.6	3.2	6.3	117.6	3.3	2.1	4.0
(공업제품)	286	342.9	104.3	0.1	1.5	0.9	106.3	0.2	1.9	3.1
· 서 비 스	159	549.7	107.8	0.2	2.8	2.8	112.0	0.1	3.9	3.7
(집 세)	2	131.4	110.9	0.3	5.7	5.8	114.5	0.2	3.2	3.9
(공공서비스)	45	150.9	105.5	0.0	-1.9	-1.2	109.1	-0.3	3.4	2.5
(개인서비스)	112	267.4	107.5	0.2	3.9	3.5	112.4	0.2	4.6	4.4

<보 기>

- ㄱ. 기준연도에 비해 2003년 8월 현재 물가가 가장 적게 오른 부문은 공업제품이다.
- ㄴ. 기준연도에 비해 2003년 8월 현재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은 개인서비스이다.
- ㄷ. 상품의 물가가 6% 오르고 서비스의 물가가 8% 올랐을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보다 높다.
- ㄹ. 2003년 7월과 비교하여 한달 후 물가가 떨어진 부문은 공공서비스뿐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5. 다음과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이론적으로 정부가 거두어 들인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면 그 차액만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를 줄이려면 재정수지 흑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발생 이후인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부실금융정리와 실업대책 등에 따라 세입의 증가폭에 비해 세출의 증가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나, 1998년 이후 상당폭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감축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사업비의 감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민간인력 대비 공공부문 인력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소비 지출의 비율은 미국이나 OECD 평균의 약 56%에서 67% 사이에 불과하다. 반면에 GDP 대비 정부투자지출 비율은 미국이나 OECD의 약 1.5배 정도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이나 인건비 축소보다는 사업비의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① 부문별 정부지출

(단위: GDP 대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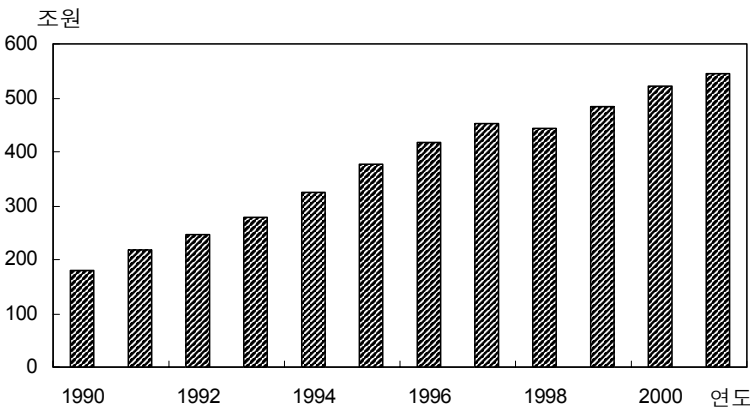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OECD 평균
투자지출	5.1	7.9	3.3	3.3	3.4
소비지출	10.3	9.6	15.6	23.6	18.2
이전지출	2.4	13.6	11.6	19.7	15.1
기 타	3.2	3.3	2.2	5.7	6.0

② 공공부문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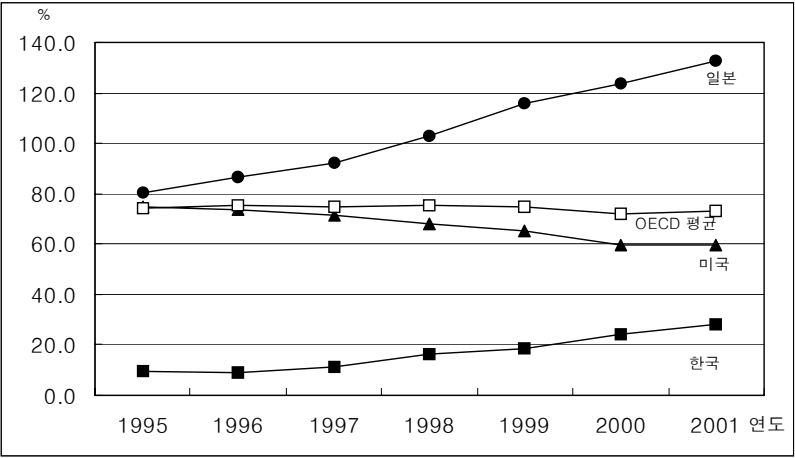
(단위: 민간인력 대비 비율,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6.6	6.8	15.8	17.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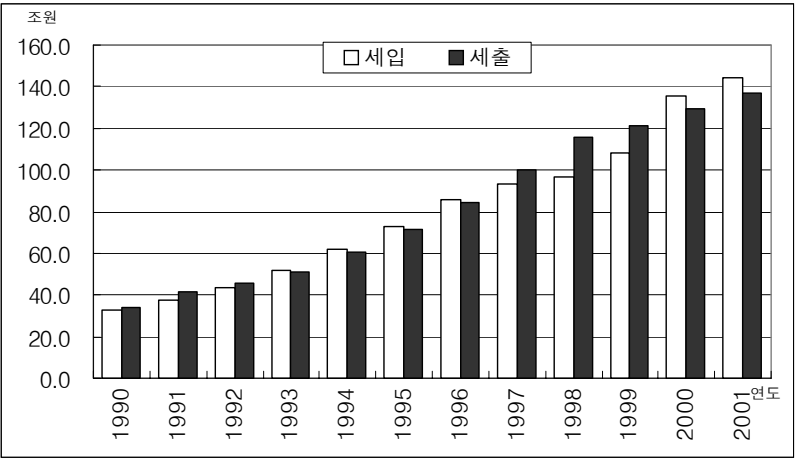
③ 우리나라 명목 GDP



④ 주요국의 연도별 GDP 대비 국가채무 추이



⑤ 우리나라 세출 및 세입 규모



문 16. 다음 자료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표> 지역별 1인당 소매점(음식료품) 매출액 비교

구분	1인당 매출액(원)			상대적비율 (소형점/대형점)
	전체	대형점	소형점	
전체 평균	767,824	583,661	184,163	0.316
특별시·광역시 평균	1,016,257	845,199	171,058	0.202
9개도 평균	534,489	338,017	196,472	0.581
대전광역시	995,200	824,321	170,879	0.207
충청남도	425,053	200,377	224,676	1.121

※ 1인당 매출액 = 매출액 / 인구수

<보 기>

- ㄱ. 대형점에서의 음식료품 1인당 매출액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평균이 9개도 평균보다 크다.
- ㄴ. 충청남도의 경우 음식료품 1인당 매출액은 소형점이 대형점보다 크다.
- ㄷ. 9개도 각각의 인구수만 알면 9개도 각각의 대형점과 소형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 ㄹ. 각 도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음식료품을 구입할 때에 대형점보다 소형점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

- ① ㄷ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17. 다음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특별시·광역시별 실업률과 연령별 실업률을 조사한 <표>이다. 다음 중 제시된 <표>에서 도출 가능한 것은? (단, 연령별 실업률 분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특별시·광역시별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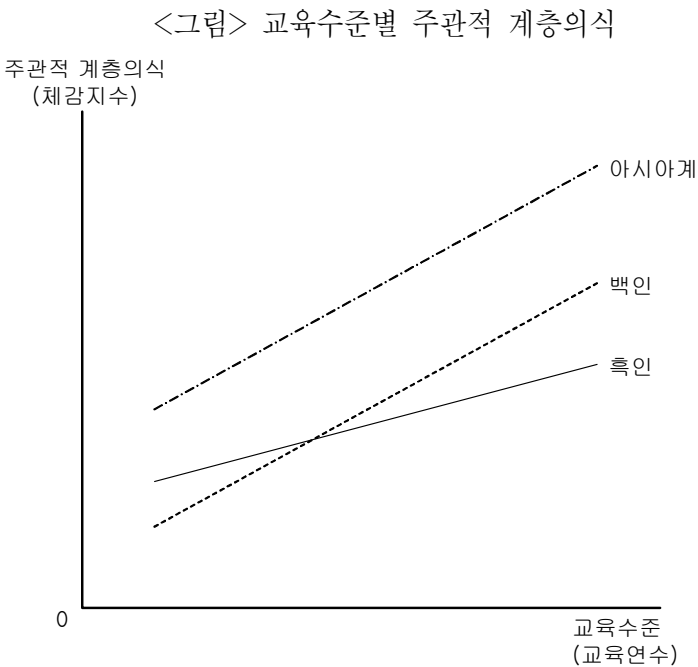
연도 도시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서울	2.5	2.7	7.6	7.0	4.8	4.5
부산	3.5	3.9	8.9	9.1	6.5	5.2
대구	3.1	3.8	7.9	7.1	4.7	4.6
인천	2.4	3.4	8.4	7.9	4.9	4.2
광주	2.7	3.1	7.7	7.7	5.6	4.6
대전	2.7	2.9	7.1	6.4	4.5	4.1
울산	—	—	7.4	6.4	4.2	3.9
전국	2.0	2.6	7.0	6.3	4.1	3.8

<표 2> 연령별 실업률
(단위: %)

연령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5 ~ 29세	4.6	5.7	12.2	10.9	7.6	7.5
30 ~ 59세	1.2	1.6	5.6	5.2	3.3	2.9
60세 이상	0.4	0.8	2.4	2.3	1.3	1.1
전 체	2.0	2.6	7.0	6.3	4.1	3.8

- ①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다.
- ②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에서 15 ~ 29세 인구비율도 가장 높다.
- ③ 특별시·광역시보다 그 외 지역의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더 낮다.
- ④ 1996년에서 2001년 사이 모든 특별시·광역시의 실업률은 1998년에 최고치에 달했다.
- ⑤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보아 노년노동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문 18. 다음 <그림>은 미국내 흑인, 백인 및 아시아계의 교육수준별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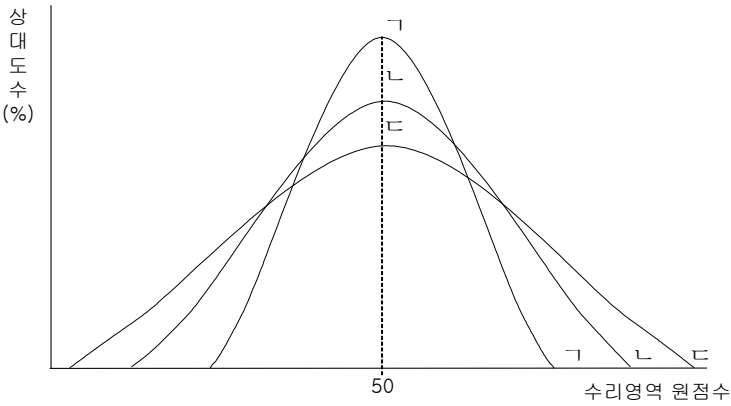
- <보 기>
- ㄱ. 흑인, 백인, 아시아계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진다.
- ㄴ. 교육수준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백인이 흑인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다.
- ㄷ.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상승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정도는 아시아계보다 흑인이 높다.
- ㄹ. 교육수준은 아시아계와 백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를 별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9. 수학능력 시험의 표준점수제는 선택영역이나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를 계산한다. 표준점수란 수험생 개인이 받은 원점수에서 영역(과목)별 전체 응시생의 원점수 평균을 뺀 값을 해당과목 표준 편차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구한다. 다음 중 ‘가’와 ‘나’에 대한 답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산출공식>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 $$\text{표준점수} = \left[\frac{\text{원점수} - \text{응시집단 전체평균}}{\text{표준편차}} \right] \times 20 + 100$$
-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 $$\text{표준점수} = \left[\frac{\text{원점수} - \text{응시집단 전체평균}}{\text{표준편차}} \right] \times 10 + 50$$

- 가. 사회탐구영역 응시생 전체 원점수의 평균이 46점이고 표준편차가 2점이라고 하자. A학생의 원점수가 48점이라면, A학생의 표준점수는 얼마인가?
- 나. 수리영역 응시생 전체 원점수의 평균이 50점일 때 B학생의 원점수가 75점이라면, 다음 중 점수가 어떠한 분포를 나타낼 때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얻게 되겠는가?



- 가
- 나
- ① 표준점수 = 60 그래프 ‘ㄱ’
- ② 표준점수 = 60 그래프 ‘ㄴ’
- ③ 표준점수 = 60 그래프 ‘ㄷ’
- ④ 표준점수 = 120 그래프 ‘ㄱ’
- ⑤ 표준점수 = 120 그래프 ‘ㄷ’

문 20. 다음 <표>는 어느 대학원의 입시 자료에서 상위 4개 모집단위의 성별에 따른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표> 모집단위별 지원자 수 및 합격자 수
(단위: 명)

모집 단위	남 성		여 성		계	
	합격자 수	지원자 수	합격자 수	지원자 수	모집정원	지원자 수
A	512	825	89	108	601	933
B	353	560	17	25	370	585
C	138	417	131	375	269	792
D	22	373	24	393	46	766
계	1,025	2,175	261	901	1,286	3,076

<보 기>

- ㄱ. 4개의 모집단위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A이다.
- ㄴ. 지원자 중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B이다.
- ㄷ.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C이다.
- ㄹ. 각 모집단위에서 성별에 따른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A모집단위 여성의 경우가 가장 높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21. 다음 <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의식 관련 설문 조사 내용이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경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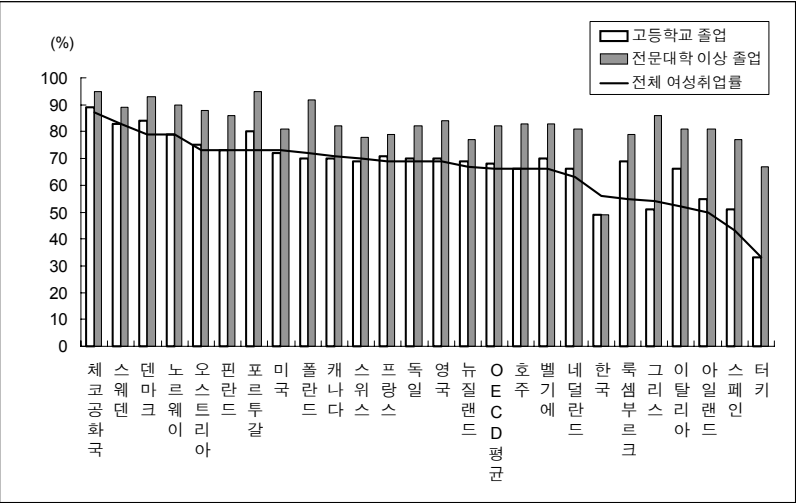
설문 내용	구분	전체	성별		학교별		계열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용돈을 받는지 여부	예	84.2	82.9	85.4	87.6	80.8	80.5	81.9
	아니요	15.8	17.1	14.6	12.4	19.2	19.5	18.1
월간 용돈 금액	3만원 미만	38.5	40.6	36.4	55.6	20.2	18.8	24.8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36.7	33.3	40.1	33.8	39.8	40.6	37.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6.3	15.5	17.1	6.8	26.5	28.2	20.4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5.9	7.3	4.6	2.7	9.5	8.7	12.4
	20만원 이상	2.6	3.3	1.8	1.1	4.0	3.7	5.2
금전출납부 기록 여부	항상 기록한다	3.6	3.0	4.3	3.3	3.9	3.4	5.8
	자주 기록한다	4.4	4.1	4.6	5.3	3.4	3.6	2.9
	가끔 기록한다	21.3	15.7	26.9	22.4	20.2	20.5	18.8
	전혀 안 한다	70.7	77.2	64.2	69.0	72.5	72.5	72.5
아르바이트 여부	했다	39.1	35.9	42.5	30.2	47.0	44.0	62.3
	하지 않았다	60.9	64.1	57.5	69.8	53.0	56.0	37.7
아르바이트 장소	음식점	53.7	43.3	62.7	50.0	56.0	55.7	57.0
	유통업체	13.8	14.3	13.4	8.9	16.9	18.6	12.8
	PC방	11.0	16.0	6.7	16.1	7.8	7.7	8.1
	일반 회사	4.6	6.9	2.6	2.6	5.9	5.4	7.0
	주유소	3.4	4.8	2.2	4.2	2.9	2.3	4.7
	기타	13.5	14.7	12.4	18.2	10.5	10.3	10.4

- <보 기>
- ㄱ. 5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학생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5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
- ㄴ. 전체 학생 중 2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으면서 항상 금전출납부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100명당 약 3명 정도가 될 것이다.
- ㄷ. 전체 고등학생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약 26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 ㄹ.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용돈을 받는 비율이 낮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22. 다음은 OECD 국가 여성들의 교육수준별(최종졸업학교 기준) 취업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것은?

<그림> OECD 국가의 교육수준별 여성 취업률(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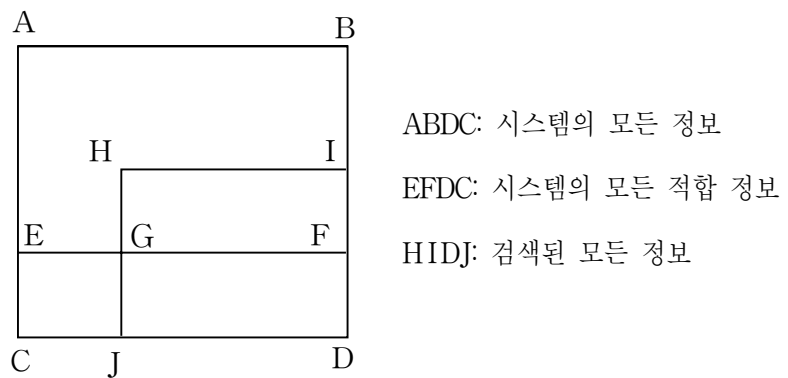


- ① OECD 국가들 가운데 전체 여성 취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이다.
- ②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다고 할 수 없다.
- ③ 스페인은 중졸 이하 여성들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을 것이다.
- ④ 이탈리아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여성의 취업률이 중졸 이하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을 것이다.
- ⑤ 한국을 제외하고 <그림>에 나타난 모든 OECD 국가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 여성의 취업률이 고등학교 졸업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다.

문 23. 이상적인 정보검색시스템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때 원하는 정보가 모두 검색되고, 또 불필요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은 정보검색시스템의 검색효율과 관련된 네 가지 척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검색시스템 내의 여러 정보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잡음률(noise ratio): 검색된 모든 정보 중에서 부적합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
- 누락률(omission ratio): 시스템의 모든 적합 정보 중에서 검색되지 않은 적합 정보의 비율
- 재현율(recall ratio): 시스템의 모든 적합 정보 중에서 검색된 적합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
- 정확률(precision ratio): 검색된 모든 정보 중에서 적합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

<그림> 정보검색시스템 내 여러 정보 간의 관계



- <보 기>
- ㄱ. 잡음률 = $\frac{HIFG}{ABDC}$

ㄴ. 누락률 = $\frac{EGJC}{EF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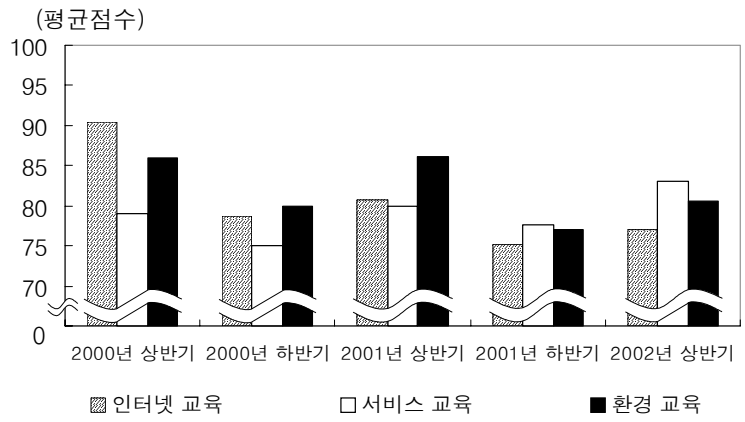
ㄷ. 재현율 = $\frac{GFDJ}{EFDC}$

ㄹ. 정확률 = $\frac{GFDJ}{HID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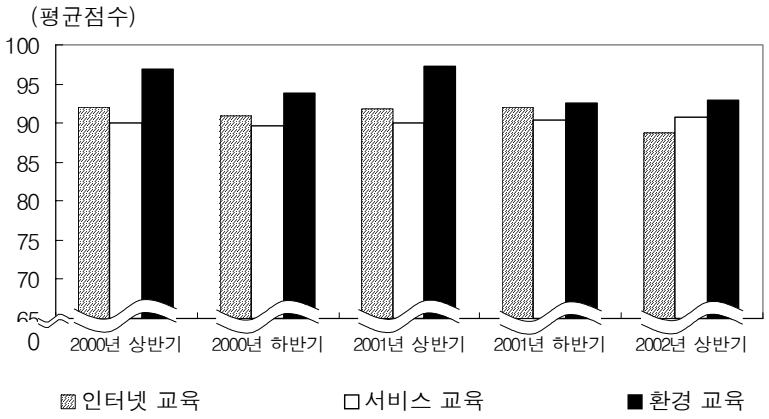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문 24. 어느 공무원 교육기관은 매년 상·하반기에 5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교육내용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 교육, 환경 교육의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행 후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질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음 <그림>들에 대한 <보기>의 해석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림 1> 교육만족도



<그림 2> 직무수행 도움정도



<보 기>

- ㄱ. 2002년 상반기의 교육만족도 평균은 2001년 하반기 조사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인터넷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 ㄴ. 2002년 상반기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같은 기간의 교육만족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ㄷ. 상반기에 비해 같은 해 하반기에 교육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하반기 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ㄹ. 분석결과, 세 종류의 교육과정 중에서 공무원 직무수행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인터넷 교육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5. 다음은 2003년 6월의 7개 지역의 전출입 인구(동일지역 내 전출입 포함)를 조사한 <표>이다(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출하여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는 1,234명이다). <표>와 같은 수치가 매달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표>에 근거하여 제시한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표> 7개 지역 전출입 인구 자료(2003년 6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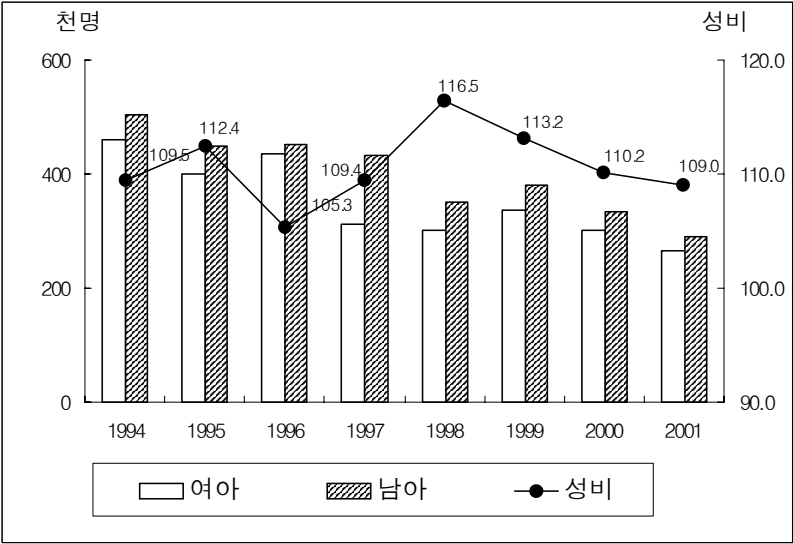
전입\전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서울	140,927	1,234	799	3,581	856	1,080	343	148,820
부산	1,991	41,312	454	303	115	245	1,147	45,567
대구	1,103	457	33,309	197	61	176	250	35,553
인천	3,709	236	115	32,475	196	186	58	36,975
광주	1,233	126	37	184	17,188	155	36	18,959
대전	1,240	178	107	231	123	18,491	63	20,433
울산	444	813	221	82	25	81	14,680	16,346
계	150,647	44,356	35,042	37,053	18,564	20,414	16,577	322,653

<보 기>

- ㄱ. 울산의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 ㄴ. 각 지역별로, 전출자 중 다른 도시로 전출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 ㄷ. 전출입 인구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 ㄹ. 대구 인구는 증가하고 인천 인구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26. 다음의 통계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옳은 것은?

<그림> 성별 출생아 수 및 성비



<표> 연도별, 성별 출생아 수
(단위: 명)

연도\항목	총출생아	여아①	남아②	남녀차이 (① - ②)	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 수)
1994	964,156	460,145	504,011	- 43,866	109.5
1995	848,360	399,391	448,969	- 49,578	112.4
1996	889,554	436,295	453,259	- 16,964	105.3
1997	657,375	313,852	343,523	- 29,671	109.4
1998	652,144	301,282	350,862	- 49,580	116.5
1999	716,993	336,279	380,714	- 44,435	113.2
2000	636,780	302,983	333,797	- 30,814	110.2
2001	557,223	266,573	290,650	- 24,077	109.0

- ① 총출생아 수와 성비는 반비례한다.
- ② 총출생아 수가 증가한 연도에는 성비가 감소하고 있다.
- ③ 1994년 이후 총출생아 수 중 여아와 남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④ 2001년 이후 총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성비는 증가할 것이다.
- ⑤ 성비가 항상 100보다 크다는 것은 전체인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27. 다음은 2001년 1/4 분기부터 2002년 4/4 분기까지의 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어 놓은 것은?

<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원/달러)

연도\분기	2001					200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주요경제지표										
GDP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7	2.9	1.9	3.7	3.0	5.8	6.4	5.8	6.5	6.2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3.6	5.0	4.2	3.4	4.1	2.5	2.7	2.6	3.3	2.7
근원인플레이션율 (전년동기대비)	3.3	3.9	3.7	3.6	3.6	2.9	3.0	2.9	3.1	3.0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대비)	7.8	4.1	4.2	4.6	5.1	8.4	11.0	11.2	11.4	10.5
아파트매매가상승률 (전기말월대비)	1.6	3.3	6.7	2.3	14.5	11.0	2.0	7.4	1.0	22.8
원화환율 (기간중 평균)	1,272	1,305	1,294	1,292	1,291	1,320	1,269	1,197	1,220	1,251

* 전 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보 기>

- ㄱ. 2002년의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은 2001년에 비해 높았다.
- ㄴ. 아파트매매가로 본 부동산가격이 2001년에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2002년에는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ㄷ. 2002년초 원화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상회하였으나 3/4 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대체로 1,200원 내외에서 안정됨으로써 연평균 환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 ㄹ. 2002년의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001년에 비해 항상 낮은 상태이며, 2002년 물가안정목표 (3%±1%) 내에서 유지되었다.
- ㅁ. 전년에 비해 2002년에는 GDP성장률은 더 높고 물가상승률은 완화되었으나, 임금상승률이나 아파트 매매가로 본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더 높았다.

- ① ㄱ, ㅁ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문 28. 한 국가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공격성 중시전략과 매력도 중시전략으로 나뉘어진다. <보기>에서 공격성 중시전략에만 해당되는 정책을 고른 것은?

한 국가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공격성(aggresiveness)을 제고하는 방향과 매력도(attractiveness)를 제고하는 방향이 존재한다.

공격성 중시전략은 자국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중상주의적 성향의 진출전략이다.

매력도 중시전략은 자국을 기업 활동하기 좋은 매력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자국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이 자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개방적 유인전략이다.

공격성과 매력도에서 모두 강해질 때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 기>

- ㄱ.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유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 ㄴ.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적으로 지원한다.
- ㄷ. 전통적인 수출 기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 ㄹ.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ㅁ. 자국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확대한다.
- ㅂ. 경제특구를 만들어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인프라와 저가의 부지를 제공한다.

- ① ㄱ, ㄹ, ㅂ
- ② ㄱ, ㅁ, ㅂ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문 33. 다음은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중복투자는 불가능하고 예산내에서 집행한다.)

<표> 프로젝트별 편익과 비용 자료
(단위: 억원)

프로젝트	편익(B)	비용(C)	순편익(B - C)
㉠	52	40	12
㉡	145	110	35
㉢	45	30	15
㉣	100	70	30
㉤	74	50	24

- ① 7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 최적의 프로젝트는 ㉡이다.
- ② 3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 최적의 프로젝트는 ㉡이다.
- ③ 1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 최적의 프로젝트는 ㉠과 ㉡이다.
- ④ 3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 모든 프로젝트의 수행이 가능하다.
- ⑤ 편익/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는 ㉢이다.

문 34. 비행·범죄소년들을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하에 두면서 일정 기간마다 보호관찰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보호관찰(community-based probation)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의 주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은 교정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사회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바람직한 선도가 가능하다.
- ②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면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직접교정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 ③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설수용 관리가 용이해진다.
- ④ 재범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⑤ 시설내 수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가족·지역사회·학교와의 유대관계 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

문 35. 다음은 도로교통환경 관련요인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다음 <표>의 A, B, C, D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도로교통환경 관련요인의 중요도 평가
(단위: %)

관련 요인	연령대별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보도와 차도 분리	3.41	2.93	7.07
A	1.52	11.42	6.41
교차로내 좌회전	2.64	7.85	7.65
대형차 혼입	3.07	5.18	2.49
신호대기시간	3.38	7.85	2.49
복잡한 신호등	1.24	3.03	4.32
규제표지	2.33	3.70	4.18
노면규제표지	0.93	4.90	6.03
B	1.94	10.38	12.21
C	39.49	1.13	4.84
D	11.58	5.80	21.45
주변 경관	5.88	1.30	5.94
E	11.72	9.25	4.21
F	4.01	9.25	7.18
G	6.86	16.03	3.53
계	100.00	100.00	100.00

—<보 기>—

○ 20, 30대는 다른 요인에 비해 ‘차량지체’, ‘불법주차’, ‘노면상태’ 등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40, 50대는 다른 요인에 비해 ‘안내표지’, ‘신호등 수’, ‘도로폭’, ‘차량통행량’, ‘차량지체’ 등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60대 이상은 다른 요인에 비해 ‘안내표지’, ‘불법주차’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도로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에 비해 40, 50대에서 약 1.8배 정도 높다.

	A	B	C	D
① 신호등 수	불법주차	차량통행량	안내표지	
② 신호등 수	노면상태	안내표지	불법주차	
③ 차량통행량	차량지체	안내표지	노면상태	
④ 도로폭	안내표지	노면상태	불법주차	
⑤ 도로폭	안내표지	차량지체	불법주차	

문 36. 다음 기사는 한 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빅맥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스위스에서 빅맥 가격이 6.4스위스프랑이고, 같은 날 미국에서 빅맥 가격은 2.13달러라고 하자. 그리고 같은 날 실제 환율이 달러당 2스위스프랑이라고 하면 빅맥지수로 환산한 환율을 기준으로 실제 환율을 평가할 때 다음 중 맞는 설명은?

< 빅맥지수 (The Big Mac Index) >

빅맥지수란 일정 시점에서 각 국의 빅맥(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 미국내 가격과 비교한 지수이다. 세계적으로 값이 거의 일정한 빅맥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각 국의 통화가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이는 ‘환율은 두 나라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비슷해질 때까지 움직인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다.

1998년 조사 때 한국의 빅맥 가격은 3,000원이었다. 같은 날 미국의 빅맥 가격은 3달러였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가 한국에서도 같은 돈을 내고 빅맥을 살 수 있으려면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어야 한다. 이 수준이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환율이다. 그러나 조사 당일 원화의 실제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었다. 결국 원화가 20 %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었다.

- ① 스위스프랑은 약 33 % 고평가되어 있다.
- ② 스위스프랑은 약 50 % 고평가되어 있다.
- ③ 스위스프랑은 약 33 % 저평가되어 있다.
- ④ 스위스프랑은 약 50 % 저평가되어 있다.
- ⑤ 스위스프랑은 약 67 % 저평가되어 있다.

문 37. 다음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표>의 해석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구 분		2005년	2010년	증가율
세계시장 (억 달러)	B to B부문	1,540	3,000	94.8 %
	B to C부문	660	1,000	51.5 %
국내시장 (억 원)	B to B부문	700	3,000	328.6 %
	B to C부문	1,300	2,900	123.1 %

※ <표>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B to B(기업간 거래)부문과 B to 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부문만 존재하고, 환율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 기>

ㄱ.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ㄴ. 2010년에는 B to B 부문에서의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비율이 B to C 부문에서의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비율보다 높을 것이다.

ㄷ. 2010년 세계시장의 경우 B to B 부문이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의 75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ㄹ. 2005년 대비 2010년 세계시장 규모는 약 73 % 증가하고, 국내시장 규모는 약 226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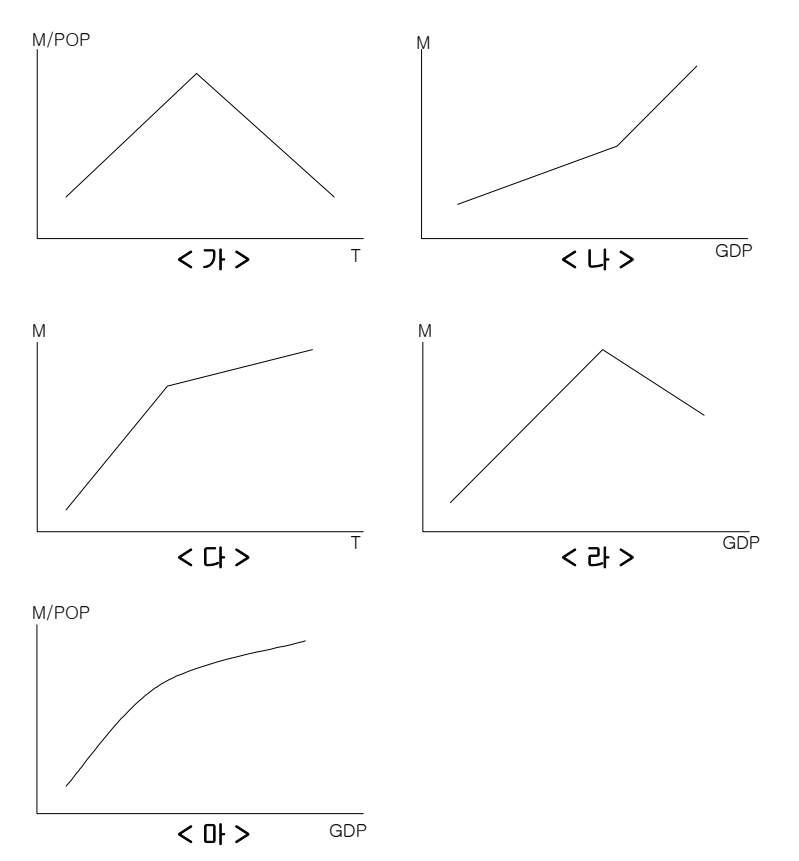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38. A, B, C 세 국가들의 금속소비량은 다음의 <가설>을 따른다고 한다.

<가 설>

한 국가의 일인당 금속소비량은 일인당 소득수준이 10,000 달러 이하에서는 일인당 소득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다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 일인당 소득이 상승할수록 감소한다.

A, B, C 세 국가들은 20년 전에는 GDP로 본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하였으나, 현재는 15,0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GDP가 일정한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인구는 변화가 없었다. 아래의 그래프 중 이 국가들의 지난 20년간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묶어 놓은 것은? (단, 그래프에서 M은 연간 금속소비량, T는 연도, POP는 인구를 나타냄.)



- ① 가, 라
- ② 다, 마
- ③ 가, 다, 라
- ④ 나, 다, 라
- ⑤ 나, 다, 마

문 39. 다음 <표>는 위성을 통해 관측된 자료가 현지조사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가로는 실제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값(현실값)을 나타내고, 세로는 위성영상을 컴퓨터로 관측하여 얻은 값(분석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의 경우 영상 관측된 결과의 정확도는 $\frac{828}{842}$ 이다. <보기> 중 <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표> 토지이용 관측 분류
(단위: 화소의 개수)

분류항목		영상 관측 자료									
		초지	활엽수	낙엽송	나지	아스팔트	물	침엽수	밭	사토	계
현지조사자료	초지	10,666	0	0	0	0	0	13	0	0	10,679
	활엽수	0	6,273	2	0	0	0	48	67	0	6,390
	낙엽송	0	2	1,151	0	0	0	0	18	0	1,171
	나지	0	0	0	97	0	0	0	0	29	126
	아스팔트	0	2	0	0	828	0	0	18	0	848
	물	0	113	24	0	0	6,499	22	334	0	6,992
	침엽수	0	27	0	0	0	0	833	0	0	860
	밭	0	1,153	12	0	14	0	0	7,741	151	9,071
	사토	0	0	0	30	0	0	0	0	461	491
	계	10,666	7,570	1,189	127	842	6,499	916	8,178	641	36,628

- <보 기>——
- ㄱ. 영상 관측된 결과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분류항목은 물과 초지이다.

ㄴ. 대각선 이외의 칸이 0이 아닌 경우는 관측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계에 나타난 수치 제외).

ㄷ. 영상 관측의 정확도는 9개 항목 각각 90% 이상이다.

ㄹ. 영상자료에 의해 활엽수로 관측된 화소 중 현지조사 결과 침엽수인 화소는 48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문 40. 다음 <표>는 1965년 이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진술 중 옳바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단위: kg)

연도 곡물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쌀	121.8	136.4	123.6	132.4	128.1	119.6	106.5	93.6
보리	36.8	37.3	36.3	13.9	4.6	1.6	1.5	1.6
밀	13.8	26.1	29.5	29.4	32.1	29.8	33.9	35.9
옥수수	0.9	1.1	2.4	3.1	3.1	2.7	3.3	5.9
콩	4.4	5.3	6.4	8.0	9.3	8.3	9.0	8.5
조	7.3	10.2	7.1	6.3	3.1	3.3	3.0	4.3
기타	3.8	3.0	2.0	2.1	1.4	1.7	3.3	3.5
계	188.8	219.4	207.3	195.2	181.7	167.0	160.5	153.3

- <보 기>——
- ㄱ. 기타 곡물을 제외하고 1인당 소비량이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를 보인 적이 있는 곡물은 두 가지이다.

ㄴ. 1965년을 기준으로 2000년의 1인당 쌀 소비량은 30% 이상 감소했다.

ㄷ. 1970년을 기준으로 2000년의 1인당 소비량의 감소율이 가장 큰 곡물은 보리이다.

ㄹ. 1인당 전체 양곡소비량에 대한 1인당 밀 소비량의 비중은 1965년에 비해 2000년이 더 크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